

현장시선



강승표 농협 제주지역본부장

비대면 시대 제주농협의 역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대변화를 맞고 있다. 제주농협은 비대면이 일상화되며 코로나 발생 초기에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열었고, 지난 설 명절에는 그것도 힘들어 온라인으로 장터를 열었다. 이렇듯 농산물 유통시장은 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코로나는 소비자들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이

다. 또 농업현장에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크게 줄어 농사짓기가 힘들고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농협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산지농협과 농업인이 손쉽게 온라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은 생필품 중심에서 식품으로 변화하며 지속 성장하고 있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의 2020년 온라인 판매액은 166억원으로 2년 전보다 5배 늘었다.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채널로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다. 올해는 2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에서도 각 농협들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소싱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어시스턴트를 육성할 계획

이다. 농협 상품소싱 오픈플랫폼에 판매상품을 게시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연동돼 업로드되기 때문에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주산 먹거리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 운동은 제주 지역에서 소비되는 먹거리는 제주산을 우선 사용하자는 취지로 생산자·소비자·도민·관광객 등 제주 사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운동이다. 이를 위해 작년 제주산 먹거리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거버넌스형 범도민 추진기구를 구성, 각 기관과 기업체, 단체를 모집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로컬푸드 소비확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제주는 마늘 수확기 등 특정 기간에 인력수요가 집중

돼 농번기 일손 부족이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 올해는 더욱 인력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에서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유무상의 영농인력 2만 5000명을 확보하고, 발작물 영농작업반과 감귤수확 영농작업반을 확대 운영해 수확기 인력난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농협은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다. 지난 60년간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농업인과 도민들은 농협에 더 큰 책임과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떻게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제주농협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깊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대변화에 맞춰 혁신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자 한다.

열린마당

취약채무자 지원에 최선을



강동훈 농협은행 제주본부 여신관리단장

코로나19로 서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올해 여신지원 기본방향으로 '취약채무자에 대한 지원'으로 정했다. 투기자금 등 금융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신은 지양하고 농업인, 소·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의 여신을 확대,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 특히 저신용 취약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납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원금의 0% 범위에서 연명, 연체기간,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을 감안해 기본감면율을 산정하고, 채무조정 후 채무잔액을 12개월 이상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 채무잔액의 75% 이상을 변제한 성실상

환자에 대해서는 5% 추가 감면을 부여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부양자 등에게는 최대 50% 범위에서 특별감면율제도, 일반 채무자 대상 장기분할 납부제도 등이 있다. 채무 과다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는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통해 자생 기회를 제공하고 성실회생하는 채무자에게는 종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다만 고의로 단기간에 다중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빛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일반적 상식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또 범(凡)농협금융 계열사 공동으로 신용회복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 세희망플러스 등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자구노력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다. 금융소외계층 고객에 대한 정기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해본다.

뉴스-in

“기습적인 한파에 고독사 걱정”

제주시, 방한용품 지원

○...제주시가 대설을 동반한 동절기 한파가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홀로사는 노인 등의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방한용품 지원 등 밀착 복지서비스를 추진. 시는 이달말까지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1300여명을 대상으로 담요, 방한 장갑 등을 전달할 예정. 시 관계자는 “이번 방한용품 지원 등 찾아가는 밀착 복지서비스 실시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한파로부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언급. 이윤형기자

육부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맞춘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발표할 예정. 도교육청 측은 학교폭력 징계와 실효성 있는 예방을 위해 학교 밖과 연계된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 오은지기자

학폭 근절대책 강화안 주목

○...최근 체육계에서 학교폭력 '미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강화안 마련 필요성도 부각.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필요성과 관련해 현재 교

실 연휴 후유증 시작되나 ○...제주에서 17일 하루 사이 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재확산 우려에 방역당국이 초긴장. 특히 18일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한 'n차 감염'이 이뤄지는 등 우려했던 설 명절 후유증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도민 불안감도 가중.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제주 529명 확진자가 534번으로, 이어 550번과 554번으로 이어진 상황”이라며 “추가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 이상민기자

사설

제주 오름, 초유의 고강도 보전대책을

제주의 오름들이 탐방객 증가와 각종 개발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다양한 식생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오름들이 날이 갈수록 자연재해 아닌 인재로 파괴되는 현실이다. 산악자연거나 오토바이 등의 무분별한 오름 탐방로 질주 사례는 오름 훼손의 또다른 심각성을 보여준다. 360여 오름들은 제주 자연의 전부이자, 미래 제주의 핵심 자산인 만큼 행정이 초유의 고강도 보전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에 이른 여지가 없다. 산악자연거로 오름농성을 오르 내리는 모습은 최근 설연휴 동부지역의 동거문오름에서 목격될 만큼 흔해졌다. 실제 구좌지역 아부오름과 문석오름, 연동지역의 열안지·노루손오름 등은 라이딩 장소로 꼽힐 정도로 보편화된 현실에 기가 찰 상황이다. 오름들은 대부분 송이층으로 형성돼 무분별한 질주로 인한 탐방로 훼손과 식생파괴 가속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름 파괴는 수 없이 몰려드는 탐방객의 답압(밟기)에 의한 탐방로와 정상부 훼손을 심각하게 일으키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용눈이오름은 지난해 정상부에 원형을 잃을 정도의 훼손 상황에 긴급 복구작업을 벌인데 이어 올해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고, 이미 휴식년제중인 물맞오름, 도너리오름, 문석오름 등은 식생복원에도 기간 연장을 할 정도다. 오름 보전은 빼어난 경관보다 접근성도 좋아 날로 늘어나는 탐방객을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도는 현재 지역외의 동거문오름에서 목격될 만큼 흔해졌다. 실제 구좌지역 아부오름과 문석오름, 연동지역의 열안지·노루손오름 등은 라이딩 장소로 꼽힐 정도로 보편화된 현실에 기가 찰 상황이다. 오름들은 대부분 송이층으로 형성돼 무분별한 질주로 인한 탐방로 훼손과 식생파괴 가속화를 피할 수

제2공항 여론조사, 갈등의 불씨 키우나

심히 우려스럽다.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이 해소되기를 기대했는데 오타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에 머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자칫 말로만 그칠 수 있다. 제2공항 여론조사가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보다 오히려 재점화할 수 있어 걱정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만으론 국책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미는 다른 게 아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갈등을 마무리 짓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의 지속 추진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제2공항 찬반 여론조사 결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구 실

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적으로 여론조사에만 의존할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해서 살펴보고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장이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 및 정책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문제는 정부 고위인사만이 아니라 지는 점이다. 도의회와 여론조사를 추진한 제주도도 제2공항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밝히고 있어서다. 원희룡 지사는 17일 모 중앙인론과의 인터뷰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한 사업이지만 제2공항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도민갈등을 풀기 위해 어렵게 성사된 여론조사를 도정의 책임자가 사실상 깔아뭉개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 수년째 지속돼온 제2공항 갈등문제를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고 양창수(사)불다클럽 총회장 아버지 제주양공 상구(향년 86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7일 22시 3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20일(토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1일(일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위미 가족묘지 부인 이태원 아들 양창수 며느리 고정희 장영 변은숙 창우 현은정 딸 양화숙 사위 오창진 양은숙 문필윤 장손 양희중 손부 김유나 ※연락처: 양창수 010-2661-0080 양창영 010-3639-0796 양창우 010-5732-5516 오창진 010-3693-1940

부고 정진호(대신전기·대신수산 대표), 진호(주)건축사사무소대신 대표) 어머니 제주양씨 순화(향년 85세)께서 서기 2021년 2월 17일 11시 30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2월 19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2월 20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층 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 정진호 며느리 장순희 진호 고인희 딸 정경미 은미 사위 이철승 손자 정찬수 손녀 정애리 범수 유리 유진 ※연락처: 정진호 010-3696-0527 정진호 010-3694-3080 장순희 010-4180-1527 고인희 010-3692-2926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강병생(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2월 19일 아들 정명효 사위 김창호 명선 강권선 순여 허창권 복녀 전병철 희삼 부영철 희양 전인수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인동장씨 윤순(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9일 아들 송창우 며느리 이정희 창기 강경숙 창훈 양윤자 딸 송경선 사위 박노재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한양조씨 성주(향년 9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1년 2월 19일 아들 이호중 며느리 김순덕 이옥희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물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술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